

글로벌 정책 동향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그린·디지털 전환

2022년 9월호

▶ 종합보고

1. 조사 개요
2. 아시아·유럽의 핀테크 정책 동향
3. 결론 및 정책 제언
4. 기타 경제 동향

종합보고 (Executive Summary)

1. 조사 개요

가. 조사 배경 및 목적

- 핀테크 산업, 전통 금융의 혁신 대안으로 부상하며 금융의 디지털화 주도
 - (산업 전반 수익성 악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핀테크 산업이 혁신 대안으로 부상
 - (ICT 발전과 모바일 확산) 스마트폰의 보편화,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주요 혁신기술의 고도화로 소비자 맞춤형 금융 서비스 가능해지며 핀테크 본격 등장
- 스타트업 중심의 핀테크 산업, 경제성장의 新 동력
 - (각국 정부의 전폭 지원) 각국 정부는 혁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을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해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돌입

나. 핀테크 개요

- 용어 및 개념
 - (핀테크, 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
 - (금융 서비스 변화)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新 IT 기술을 활용,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 서비스 혁신
 - ◆ (사례) △모바일 뱅킹 △앱카드
 - (산업 변화) 혁신적 非금융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 이용자에 송금, 결제, 대출, 자산 관리 등 금융 서비스 직접 제공
 - ◆ (사례) △카카오페이 △애플페이 △알리페이
- 글로벌 핀테크 시장동향
 - (성장)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20년 1,226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 20%를 기록, '25년 약 3,05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핀테크의 세계화) 기존 북미와 유럽 기업이 선도하던 핀테크 산업, 최근 ASEAN 포함 아시아권 기업 성장세

- (주요 이슈) △규제 혁신 △빅테크 기업의 시장 잠식(인수·합병) △핀테크 기업과 전통 금융계 간 역학 관계 전환(하청 → 협업·공생)
- (선도 기업) 美 뉴욕 기반 시장 조사 기관 CB Insights, 핀테크 분야 선도·유망 기업 250개社 연례 선정

[그림 1] CB Insights 선정 핀테크 250개社 (2021년)



그림 출처: CB Insights(2021). "The Fintech 250."

시사점

- (핀테크, 전통금융의 혁신 대안) ICT 발전과 모바일 확산과 산업 전반 수익성 악화 등 산업 변화에 맞추어 전통 금융의 혁신 대안으로 핀테크 산업 부각, 경제성장의 新 동력으로 작용
- (유연한 핀테크산업) 금융과 기술을 접목한 핀테크 산업은 혁신적 非금융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 이용자에 금융 서비스 직접 제공함으로써 핀테크 기업과 전통금융계 간 협업·공생관계로의 발전 도모

2. 아시아·유럽의 핀테크 정책 동향

가.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

1)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 UN 사무국의 '2030 로드맵': 건강한 핀테크 환경조성¹⁾

- (로드맵의 개요) UN 사무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번째²⁾와 기후 변화에 대한 파리협정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융자금 로드맵을 발표
- (디지털 금융 전략) 로드맵은 공공 및 민간의 지속가능한 ESG 자금 조달을 위한 3가지 전략을 제시함. 특히 세 번째 전략인 금융 디지털화 전략은 안전한 금융 생태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에 초점을 둠
 - (전략 1) 2030 SDGs 어젠다와 글로벌 경제 정책 및 시스템 연계
 - (전략 2)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전략 및 투자 강화 금융혁신, 신기술의 잠재력 확보
 - (전략 3) 금융혁신, 신기술 및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활용, 금융에 대한 공정한 접근 제공

[표 1] UN 사무국의 6분야 행동강령

구분	행동강령
Advocacy	• SDGs와 파리협정 결과를 경제 및 금융 정책 및 관행에 통합
	• 기후금융의 확장
	• LDC* 및 SIDS**의 요구사항 강조
Engagement	• 글로벌 플랫폼 구축 - 디지털 금융 잠재 위험 요소 방지(Task Force)
	• IFIs와의 파트너십 강화
	• UN 시스템 실행 촉진 - UN 개발시스템이 개혁됨에 따라 금융기술 활용 및 SDGs에 대한 전략적 자금조달 확대 - 공통의 지속가능한 투자틀 구축 및 투자 데이터 품질/가용성 개선

*Least Developed Countries **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자료 출처: UN(2019). "Roadmap for Financ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9-2021."

1) United Nation Secretary-General's (2019) "Roadmap for Financ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9-2021"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wp-content/uploads/2019/07/EXEC.SUM_SG-Roadmap-Financing-SDGs-July-2019.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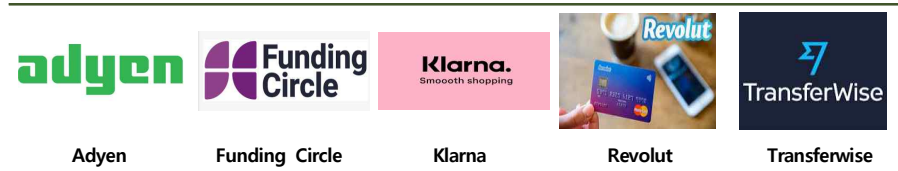
2) Goal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2)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 EU 핀테크³⁾

- (금융 분야 핀테크 강제) 대부분의 EU 핀테크는 결제 및 대체 금융 분야에서 운영, 유럽의 강점은 기업 대 소비자(B2C)가 아닌 기업 대 기업(B2B)형태로 대형 유니콘 기업 대거 포진

[그림 2] 유럽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



- (금융 핀테크의 부상) 기존 금융기업은 핀테크가 부상함에 금융계 고위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핀테크산업은 경제 및 금융 위기, 디지털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여 빠르게 사회에 스며들
 - 결제서비스 지침인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는 핀테크 기업에 즉각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

□ 유럽 핀테크 생태계

- (핀테크 시장 경쟁) 전반적으로 핀테크의 부상은 위협에서 전통적인 플레이어에게 기회로 빠르게 흡수됨. 기존 및 신흥 핀테크 기업 모두가 새로운 기술 중심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의 이점을 얻기 위한 전략 개발 및 경쟁 중
- (규제 환경) 샌드박스(규제 테스트용) 및 표준화와 같은 미래 지향적인 이니셔티브를 특징으로 하는 유리하고 안정적인 규제 환경을 구축
 - 유럽의 허브와 핫스팟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 (유럽 핀테크의 도전과제) 중국과 미국의 기술 회사 및 플랫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임 2섹터 간의 경계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모호해짐에 따라 유럽의 핀테크와 전통적인 금융 관계자들의 경쟁 속 정책 지원 불균형 예상
 - 단일 시장 내에서 모든 규제 장벽과 차이를 없애기 어려움. 이는 유럽 차원에서 핀테크의 효과적인 확장에 대한 위협요소로 인식되기도 함

3) European Commission(2018), "Overview of the Fintech sector: challenges for the European players and possible policy measures at EU level"

3)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아세안의 금융 시스템 수준

- (금융 발전 수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중에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가장 높은 금융발전수준을 보임.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Digital Finance Service, DFS)에 대한 정책 및 규제 생태계가 비교적 발전됨⁴⁾

□ 아세안의 디지털 금융 핵심가치

- (G20 고위급 회담) 아세안은 G20(Group of 20) 디지털 금융 포용을 위한 고위급 회담 원칙을 따름. 아세안 국가들의 DFS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강력한 약속이 핵심임
- (주요 내용)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디지털 금융 포용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임
 - 국가 전략이 디지털 금융 포함 목표를 반영하도록 보장
 - DFS 제공에 관련된 정책 입안자와 당국 간의 효과적인 조정 보장
 - 시민 사회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 간의 적극적인 대화 및 조정 유지
 - 대량 반복 결제 스트림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현

□ GPF(The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 (개요) 모든 G20 국가 및 비G20 국가와 관련 이해 관계자가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금융 포용 실행 계획을 이행 및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플랫폼
 - (금융포용 실행계획)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 포용을 글로벌 개발 의제의 주요 기둥 중 하나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금융 포용 실행 계획을 승인하고 있음
- (GPF의 수행목표) GPF의 노력에는 국가가 혁신적 금융 포용을 위한 G20 원칙을 실행하도록 지원, 금융 포용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 강화와 금융포용목표를 설정하려는 국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
- (아세안의 디지털 금융 지원)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 금융서비스(Digital Finance Service, DTS) 개발을 지원하고 가속화하기 위해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강력한 약속이 핵심. 아세안은 G20(Group of 20) 디지털 금융 포용을 위한 고위급 회담 담론의 원칙을 따르며 그 내용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디지털 금융 포용을 위해 정책 및 개발 등 다각면에서 지원하는 것임

4) World Bank(2020), Advancing Digital Financial Inclusion in ASEAN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856241551375164922/pdf/134953-WorldBankASEANDigitalFinancialInclusioninASEANpublicationJan.pdf>

나. 주요국

1) 미국

-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의 디지털화가 지속됨에 따라 모바일 결제 위주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포함한 핀테크 시장 규모 확장 가속화
 -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경쟁)**5) '07년 Braintree, Klarna, Ayden 등의 핀테크 기업들이 어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커머스 결제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카드사, 은행, 모바일 제조업체들의 모바일페이 경쟁이 심화됨
- **(핀테크 규제)**6) 미국은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관리를 위해 법안 제정을 통하여 규제를 두고 있음
 -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개입을 촉진하여 IT분야의 핀테크 시장 진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

2) 중국

-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대한 수준의 핀테크 시장을 구축. 더 나아가 세계 핀테크 생태계를 주도해나가고 있음
 - 핀테크 도입율은 69%로 인도, 영국, 브라질, 호주 등의 20개 국가 중 1위를 기록7)
 - 글로벌 핀테크 산업 내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27개 유니콘기업 중 8개가 중국 핀테크 기업

[그림 3] '18년 핀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은행/금융 서비스 고객 비중(%)

서비스 유형	서비스 유형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결제 및 송금	40%	20%*	4%	1%	1%	1%
대출	14%	5%	2%	2%	2%	2%
개인 자산 관리	5%	3%	1%*	2%	1%	1%
보험	35%	2%	2%	1%	1%	1%

그림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 "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 현황과 정책 방향."

- **(금융서비스 제공)** 중국 내 소비 활성화 및 소비자 금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기존 제도권 은행의 독점 영역이었던 금융시장의 진입장벽을 무너뜨리고 핀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제공

5) 김동그라미, '미국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 현황', kotra해외시장뉴스(2018.12.15.)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71755

6) 주장진 외 3인(2016), '핀테크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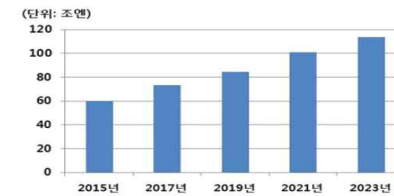
7) KISTEP(2018.01), '심층분석 30호 중국 핀테크 산업의 동향 및 시사점'

- 중국은 핀테크 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온라인 지급결제 △온라인 소액대출 △온라인 채테크 등의 분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갱신·수립함

3) 일본

- **(수요증가에 따른 핀테크 성장)** 일본은 인터넷 보급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결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핀테크 기술과 시장이 발전 중
 - 스마트결제 분야 기준으로 '15년 60조 2000억 엔에서 '23년 114조 엔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그림 4] 일본 국내 핀테크 시장규모 추이



자료 출처: 노무라종합연구소(2018). IT네비게이터

- **(핀테크 지원정책)** 일본 정부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핀테크 기업 대상 출자 규제 완화, 개인정보의 활용 제한 범위 완화, 결제업체의 라이선스 취득 간소화 등 각종 핀테크 규제 완화에 노력을 가함
 - **(핀테크 혁신 촉진)** 정부 차원의 핀테크 이노베이션 촉진, 각종 규제 개혁 실시, 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이 전자결제 등 대행업체와의 제휴 및 협력에 관한 정책 시행. 일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도 창설하였으며 향후 블록체인을 활용한 대규모 실증 실험 등도 시도 중

4) 독일

- **(은행과의 파트너십)**8) 독일에서는 주로 기존 금융기관 은행과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간 협업과 투자형태로 핀테크 산업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영향)** 독일 은행의 90% 이상은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 솔루션 △시장 진출 속도 △재무성과 △혁신비용 감축의 효과를 보임
- **(디지털 허브 이니셔티브)**9)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온라인으로 투자자와 스타트업기업 대상 신청을 받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 특정지역의 산업 집중을 방지하고 산업의 분포화를 통해 지역간의 경쟁 유도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함

8) KITA(2018.02), '2018년 유럽의 핀테크 산업 동향'

9) KCERN(2020.11), '독일 디지털 정책 현황 분석'

5) 영국¹⁰⁾

- (금융서비스 활성화) 영국은 자금 조달 생태계 구축이 활성화되어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은 1,600개 이상으로, 2030년까지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분야) △대출서비스 △은행서비스 △투자 플랫폼 △결제 통합 서비스 △온라인 결제 서비스 △P2P 대출 서비스 등
 - (투자규모) 영국 내 핀테크에 대한 벤처캐피탈, 사모펀드(PE),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투자규모는 33억 달러를 기록함('18년 기준)
- (세금 감면 혜택) 영국 정부는 스타트업 사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핀테크 관련 성장을 위한 기금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조건에 부합할 경우, 세금 일부 또는 전면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6) 싱가포르¹¹⁾

- (결제 핀테크 강세) '18년 기준 핀테크 분야 글로벌 투자 규모는 2,196개 핀테크 회사 대상 약 1,118억 달러 규모로 핀테크 활용 분야 중 결제 및 전자지갑 분야가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
 - '17년 기준 싱가포르 내 결제 서비스 핀테크 기업은 102개이며, 이는 아세안 내 총 367개의 약 28% 수치임
- (스마트금융센터)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스마트금융센터(Smart Financial Centre)를 설립하여 금융 분야 혁신과 신기술 도입·활용을 위해 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함

7) 프랑스¹²⁾

□ 핀테크 산업현황

- (해외투자유치 유력화) '20년 12월, 프랑스 핀테크(France FinTech)의 발표에 따르면, 전년 대비 18.5%로 상승한 8억 2820만 유로 투자 유치
 - 주된 투자 유치 국가는 미국, 영국, 중국 등 핀테크 강국들로 투자액은 '20년 유럽 전체 핀테크 기업 투자 규모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임
- (해외 투자 유치에 적합한 금융 관련 감독 및 규제 시행) PACTE(Law on Business Growth and Transformation)법에 의해 제정된 통화 및 금융에 관한 법률(Monetary and Financial Code)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전략들을 추진

10) 박지혜, '영국 핀테크 시장 현황'kotra해외시장뉴스(2020.01.28)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Sn=243&pNttSn=179985
 11) NIPA(2019.12), '싱가포르 핀테크 진출가이드'
 12) 광미성, '프랑스 핀테크 산업 현황 및 전망', kotra해외시장뉴스(2021.05.25.)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88562

- (결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 프랑스 내 핀테크 산업 안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20년 10월 개최된 핀테크 포럼에서 결제인의 본인 인증, 거래 방식 및 운영의 위험 정도 명시, 소프트웨어 보안성 강화 등의 결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세부 전략을 발표

8) 한국

-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핀테크)¹³⁾ ICT 기업의 금융기술 서비스 분산은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촉진 및 확산 가속화
 - (분야) △P2P금융 △간편송금/지급결제 △금융플랫폼 △보안/인증 △블록체인/가상통화 등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중심 운영 구조
- (금융제도 개편 및 핀테크 산업 경쟁력 제고)¹⁴⁾ 정부는 핀테크를 新 경제성장 동력으로 판단하고'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여 실행 중
 - 핀테크 시장으로의 신규진입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같은 핀테크 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전략 포함

시사점

- (국제기구의 건강한 핀테크 환경조성) UN의 2030 로드맵, ASEAN의 디지털금융서비스 개발 지원 지침은 핀테크 혁신기술 개발보다 안전한 핀테크 환경조성을 강조. 이는 금전과 관련된 핀테크 산업의 특성상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산업이 지속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유럽 내 공통 결제 규칙인 EU의 PSD과 같은 국가 정부 또는 역내 차원의 핀테크 지침은 건강한 디지털 환경 생태계 구축하여 핀테크 산업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할 것임
- (美·중의 다양한 핀테크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 강국 미국은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커머스 결제 시스템을 개발된 스타트업기업에 접목시킴으로 플랫폼 확장 중인 반면 중국은 막대한 핀테크 산업 투자로 서비스 유형을 넓히고 있음. 이는 다양한 플랫폼 핀테크 시장과 추이 관찰을 통해 소비추세 및 형태 교훈을 얻을 수 있음
- (유럽의 핀테크 시장 활성화) 독일의 디지털 허브 이니셔티브와 영국의 활성화된 핀테크 자금조달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는 핀테크 시장을 확장시키는데 혁혁한 역할을 함. 또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은 핀테크 시장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함
-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핀테크 활성화 정책 지원)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기점으로 꾸준히 핀테크 활성화 지원 정책 개진 중. 그러나 지원정책의 주류는 국내 대상에 국한되어 있어 핀테크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전망

13) KOSCOM(2019), '국내외 핀테크 시장 트렌드'
 14) 한국금융공학회(2019), '국내외 핀테크 산업의 현황과 규제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고'

3.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핀테크 제도 및 법률¹⁵⁾

□ 핀테크 산업 제도 현황

- (기존 금융 법률 적용) 핀테크와 관련된 제도는 모두 기존 금융 법률 적용
- (주요 쟁점 규제) 핀테크 산업 성장의 결정적 장애물로 간주 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 규정과 망분리 규제까지 적용

[그림 5] 테크 산업 관련 주요 규제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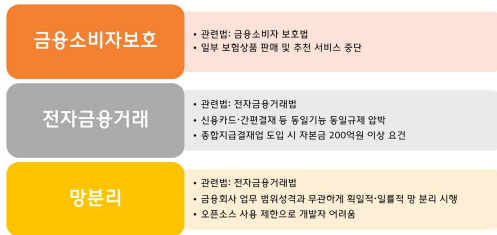


그림 출처: 한국핀테크산업협회(2022), 코스콤

나. 금융생태계 규제 정비 및 시사점¹⁶⁾

□ 금융생태계 전략 재검토 및 규제 정비

- (금융생태계 및 금융산업 구조 재편) 핀테크, 광범위한 고객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생태계 및 미래 금융산업 구조 재편
- (환경에 적합한 규제) 글로벌, 핀테크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각국 환경에 맞는 맞춤형 규제 마련
- (디지털 금융 환경 조성) 국내, 핀테크 규제 정비를 통해 디지털 금융 환경 조성

□ 시사점

- (비즈니스 관점) 핀테크 규제 변화 고려한 전략 재검토
 - (금융안정성) 시스템 및 지배구조 리스크 등 관련 잠재 위험 요소 관리 필요
 - (소비자보호·금융포용성) 소비자 중심 경영전략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 리스크 관리 강화

15) 전자신문 웹사이트. “핀’테크 말고, 핀’테크’로 접근” <https://www.etnews.com/20220819000036>

16) 삼성KPMG 경제연구원(2022), 빅테크를 통해 바라본 디지털 금융의 방향

- (혁신) 변화에 유연한 사업구조 확보, 해외진출 고려, 소비자의 페인포인트를 해소 및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투자
- (규제 관점) 공정 경쟁과 효율성,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성 등 균형 필요

[그림 6] 개인 공급자의 데이터 접근성 vs 익명성(좌), 규제완화의 효과(우)



그림 출처: 삼성 KPMG(2022), “빅테크를 통해 바라본 디지털 금융의 방향.”

시사점		
○ 9대 핵심 핀테크 정책 제언		
인프라 혁신	규제 혁신	지원 혁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스몰라이선스 활성화 및 샌드박스 내실화	핀테크 전문 인력 양성
망분리 제도 개선	온라인 금융플랫폼 규제 체계 마련	스타트업 지원 위한 공공 인프라 확대
신중 디지털 자산 법제 정비	데이터 규제 합리화	국가 차원의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 기존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 모두의 발전을 위하여 혁신 경쟁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금융안정성, 소비자 보호 및 금융 포용성 향상과 규제 변화에 유연한 사업구조 확보 및 해외진출 고민, 메타버스·가상자산 등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투자 - (규제) 디지털 혁신과 금융정책 목표간 균형 모색 및 혁신 촉진 유지하며 금융안정성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 필요 		

4. 기타 경제 동향¹⁷⁾

- 日 정부, 전자화폐 급여 지급 허용 방침
- 러시아 최근 금융시장 동향
- 최근 도미니카공화국 경제 동향
- 지속 성장 기대되는 필리핀 전자상거래 시장
-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발표
- 터키의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 중국 베이징 市, '디지털 휴먼 산업 발전 행동계획' 발표
- 캄보디아 소액금융기관(MFIs), 17억 달러 상당 대출 재조정
- 글로벌 가상자산 채택 순위 1위 베트남의 암호 화폐 시장동향
- 네덜란드의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

17) 상세내용은 본문 31페이지 참조.